2018 새해 새 설계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역점"

일자리 창출 기업 혜택 우선 지원

첫걸음 기업에 창업자금 최대 80%

수출상담회 개최 글로벌기업 육성

먹거리 연계 전통시장 브랜드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첫해를 맞았다"며 "중소기업인과 지역민이 청에 거는 기대가 어느해 보다 큰 만큼 중소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독자생존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지역의 열악한 벤처투자 및 인프라를 확대 ▲현장 중심 수출지원으로 글로벌기업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세일 행정서비스를 들었다.

타 시·도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기반 인프라가 적은 것이 안타깝다는 김 청장은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극복을 위해 벤처투자와 인프라를 확대해 가겠다"며 "호남권에 벤처캐피탈 전문가를 육성하고 청년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와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지원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 수출지원과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이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1820만불의 수출계약 따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에 이어 중점과제로 삼은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는 기업에 혜택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자금과 창업·벤처, R&D 사업 등에 고용을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경제의 축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조금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과거에는 아케이드와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하드웨어에 지원이 집중됐다면 올해는 상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지원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친절 서비스와 상품 진열법 등 마케팅 전략을 상인대학을 통해 전파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우리 지역의 강점인 먹거리를 널리 홍보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게 특산물이나 상품 개발에 주력해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만의 강점을 살려 나가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부 정책활용율도가 유난히 낮다고 말하는 김 청장은 청과 중소기업간 소통을 강화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정책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전 직원이 중소기업 정책 세일즈에 참여해 정책활용률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밀착지원팀'을 구성해 타 부처 소관 사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반의 애로 해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 R&D,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한 번도 수혜를 받지 못한 '첫걸음 기업'을 많게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전 직원의 정책세일즈맨화 운동'을 올해는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끝으로 김 청장은 "청에서 부로 위상도 높아지고 산업부의 테크노파크, 금융위원회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미래부(현 과학기술정통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도 이관돼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해결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중기부 외의 다른 부처 관련 애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게됐다"며 "관청의 문턱이 높다는 선입견을 갖지말고 중소벤처기업청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우리 상품인 중소기업정책을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0.23 (-3.05)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1)
- 코스닥 829.99 (-9.52)
- 환율 (USD) 1067.10원 (+1.10)

임대료 없이 8년 거주 '모아엘가 더 스카이'

혜림건설 신안동에 204세대…무등산 조망·생활 인프라 탁월

혜림건설이 짓는 신안동 모아엘가 더 스카이가 12일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시행사인 경인리츠에 따르면 신안동 모아엘가 더 스카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구성되며 아파트84㎡ 199세대, 오피스텔 84㎡ 5세대, 총 204세대로 구성된다.

〈투시도〉

신안동 모아엘가 더 스카이는 만 19세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유무와 소득제한 등을 따지지 않고 청약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하는 임대료 없이 8년동안 이사 걱정없이 내집처럼 안정적인 임대를 보장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부담이 없으며 8년 만기 전이라도 보증금 걱정없이 이사할 수 있고, 중도금 신청없이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무등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기아챔피언스필드,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전남대와 인접 초·중·고교의 명문학군, 반경 2km 내에 신세계백화점, 롯데 백화점, 홈플러스까지 풍성한 생활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교통 조건도 우수해 시내 순환도로가 인접해 광주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서광주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택전시관은 북구 중흥동 323-5번지이며 주택전시관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자구안 이견 속 교섭 개시

사측 "임금동결·삭감 자구안 받아들여야"…노조 "中 공장 처리·부채탕감이 먼저"

정상화 방안을 놓고 금호타이어 노조와 사측이 이견을 드러낸 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노·사간 실무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이 전날 노조를 방문해 노·사가 협력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후 노조가 동의해 교섭을 진행키로 했지만 '자구안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본 교섭은 열리지 않고 일부 실무협의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영개선 절차를 밟는 사측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피하려면 이미 한 차례 유예한 금호타이어 채무 1조3000억원에 대한 추가 상환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6일 이전까지 노사가 '임금삭감·동결'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먼저 제시해야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9일 기자간담회를 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광주전남지부 광주지회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동결·삭감 등이 포함된 자구안에 대해 '먼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자구안 동의 요구에 앞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공장 문제 처리와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임단협이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됐는데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단협 해결도 자구안 동의의 선결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2009년에 임금 40% 삭감과 정리해고를 포함한 가혹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생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요구되는 임금 삭감과 인원 구조 조정에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현재 경영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을 전제로 노사 구분 없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채권단과 사측이 요구하는 자구안 동의서 제출 요구에 맞서 10일부터 휴무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12일과 19일에는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24일에는 예정된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산업 진흥법 제정해 도약의 해로"

광산업진흥회 신년계획…LED 민간투자·해외마케팅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역 광산업이 새롭게 부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마련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9일 신년사업계획을 통해 지난해 국내 광관련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LED민간투자 보급사업,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며 올해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 광산업체와 유관기관의 협력·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를 위해 5개 권역 12개 국가에 있는 해외마케팅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무역촉진단 구성과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유망전시회 공동관 운영 등 다각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광융합엑스포를 열 계획이며 11월에는 광주에서 '광산업 유망 기술·제품 로드쇼 및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LED조명교체 민간투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내실화를 다지는데도 힘 쓸 계획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산업 특별법인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광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광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혁신 및 중심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